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이 찬 회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장

〈필자약력〉

- 96. 5 미국 Wisconsin 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87. 5~'94. 8 환경처 홍보협력과, 국제협력과, 정책총괄과(사무관)
- 96. 6~'98. 9 환경부 수도정책과(서기관)
- 98. 9~'99. 12 금강환경관리청 운영국장,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 99. 12~'01. 7 환경부 장관실 비서관
- 01. 8~'04. 8 주유엔대표부 1등 서기관
- 04. 8~현재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I. 시작하는 말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회의 이후 지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경제와 사회개발, 환경보전 등 3가지 요소의 통합과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과 환경보전의 핵심 주체인 기업체가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환경을 보호하는 책임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어느 한 단계에서만 아니라 제품 전(全)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함으로써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곧 기업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저감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환경경쟁력이 21세기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격변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초일류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경영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및 환경-무역 연계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문제로 야기되는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환경산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친화적인 기업 경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친화기업제도 운영,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보급 촉진, 제품의 환경성 보장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환경경영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정부 정책방향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II. 환경관련 국제 동향

최근 러시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폐기상태에 있던 교토의정서가 마침내 2005. 2월에 발효되게 되었다. 동 의정서의 발효로 선진국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하여야 하고, 제2차 공약기간인 2013-17년까지의 감축대상국가와

감축비율을 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가시화 될 전망이다.

교토의정서 제정 논의시 77그룹의 일원으로 제 1차 감축의무대상국가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9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이며 자원순환적인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두드러진 국제적인 동향중의 하나는 EU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섬유 등 다양한 제품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무역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2006.7월부터 시행예정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6개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2006.12월부터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폐기지침(WEEE)'은 제조업체가 수명이 다한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회수·폐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각 품목별로 재활용 비율을 정하고 있다. 2003.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은 4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폐차비용의 판매자 부담 및 재활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규정(EuP),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REACH) 등을 도입하여 제품의 설계·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全)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품의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국의 각종제도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어 관련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의 선진기업들도 에코디자인 등을 통하여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전담조직의 신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 GRI, WBCSD, UN Global Compact와 같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단체 및 조약에 참여하는 등 친환경경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III. 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정부에서는 우선 2001년부터 기업에 선진 환경경영기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환경경영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직접 기업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기업의 환경성과 및 위험을 평가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의 사회적 환경책임과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성과평가, 환경회계 작성 및 금융기관 환경리스크 평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4년까지 총 130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2005년도에 추가로 40개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업 스스로가 기업 운영 전(全)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환경친화기업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159개 업체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전(全)환경분야에 걸쳐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요건에 환경경영부문을 강화하여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제고토록 한바 있으며, 환경친화기업제도의 국제적 수준의 브랜드화 방환의 일환으로 환경친화기업로고를 개발하여 2005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대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친환경상품 생산 및 보급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자원의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보급 활성화는 제품의 원료구입·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全)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적은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94년부터 환경마크 상품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구매자의 관심 및 홍보 부족으로 친환경상품의 보급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 12월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상품이나 우수재활용상품과 같은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03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이 약 2600억원에 불과하였지만, 이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에는 약 1조원 이상으로, 2009년에는 약 2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상품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이는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를 보다 활성화 할 계획이다. 2004년말 현재 102개 품목에 1577개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는 환경마크제도의 경우 최근 웰빙 및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증 제품 및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2005년에는 현재의 환경마크협회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환경마크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마크의 국제화를 위하여 중국 및 유럽국가와 환경마크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업체가 외국의 친환경상품 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직접 현지에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이 동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우리나라의 환경마크협회에서 당해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해당업체는 인증에 따른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친환경상품이 외국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1년 9월부터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서 소비되는 자연자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22개 제품군 266개 상품이 인증을 받고 있는바, 동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년중에 환경성적 산출에 활용되는 기초소재의 전과정 분석 D/B를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동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1990년대 이후 EU를 중심으로 하는 지구촌의 환경규제는 공정이나 관망에 대한 규제에서 제품에 대한 규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제품의 개발과 설계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코 디자인 및 친환경 원·부자재의 공급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에코디자인 일반 지침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친환경 원·부자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물품공급망(ESCM)』표준 지침을 개발·보급하였다. 2005년에는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조달을 위한 『건축자재 환경친화적 물품공급망(ESCM)』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시에 기업에서 에코디자인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에코디자인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제품 환경성보장제 도입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자동차,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및 재활용용 기준을 정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IV. 맺는 말

기업이 환경경영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

엇보다도 계속되는 지구환경의 악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면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경영할 수 없기에 선진국에서는 환경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다. 또한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환경산업의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환경산업을 정보통신, 바이오산업과 함께 21세기 성장유망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곧 환경경영은 국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업체가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시스템을 환경경영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하고, 또 생산공정을 청정생산체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경영에 대한 CEO의 확고하고도 명확한 비전과 임직원들의 실천지향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CEO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의 환경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환경진단을 통해 현재 기업체질의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하고 환경

경영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간다면 환경경영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체들이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극심한 국내·외 경쟁을 극복하고 일류기업으로 거듭 나갈 기대해 본다.

새가족

철한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철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 목록

- 현대수산사료(주) · 김길환 ·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80-2
- 대성산업사 · 권양호 · 부산 사상구 감전1동 948-12
- 에스티엠직 · 유영찬 ·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210
- (주)에이스테크 · 신동규 ·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도종리 710-1
- 대도산기 · 박환승 · 경북 구미시 황상동 502
- (주)새한레미콘 · 강성룡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들리 2050-9
- 새한아스콘(주) · 이상민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들리 2050-1

지역별 목록

- 한중공업(주)천안공장 · 최성정 · 충남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50-2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박재민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520-2
- 에버뉴(주) · 오재승 ·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362-34
- (주)보성레저산업 · 김현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20-2
- (주)상동록재 · 권상봉 · 대구시 달서구 다사읍 서재리 793
- (주)미래인더스 · 서수원 · 경북 구미시 공단동 321-11
- (주)한국보통컴퍼니 · 정유진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10
- 진영사 · 이영기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8

지역별 목록

- 피앤텍스무역 · 이종택 · 경북 김천시 대광동 858-15
- 동창산업 · 김의기 · 경북 영주시 허당동 272
- (주)인동 · 이인우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21
- 강원산업 · 정경관 · 대구시 북구 노원3가 1082
- 영광금속 · 홍기수 · 대구시 북구 신격동 7-16
- 대경수지 · 변전섭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대거리 140-1
- 성조파인세라믹 · 권은진 · 경북 경산시 남산면 송내리 47
- 원동산업 · 서상권 · 경북 경산시 임량면 부적리 62-5
- 삼미상회 · 장석성 · 경북 경산시 임량면 용암리 91-5
- 압록식재 · 김재복 · 경북 경산시 임량면 용암리 18-1
- 한민전자 · 이원호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618
- 팔공목재산업 · 이무성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15-4
- (주)왕월 · 김춘식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굽산리 980
- 중앙간업(주) · 권오윤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103-2
- (주)ECS KOREA · 윤왕섭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93
- 영운전자 · 강영락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76
- 용진산업개발 · 최성운 · 경북 경산시 임량면 용암리 206